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44호【주제 제25387호】주제 105(2016)년 8월 31일(수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룡해 동지, 김수길 동지, 김능오 동지, 박태성 동지와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부서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또한 김용주 제일본조선청년동맹 대표단 단장, 김영녀 재중조선인청년연합회 대표단 단장이 참가하였다.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닌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가슴가슴은 한없이

승고한 청년증서, 청년사랑의 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병장들로 키워주시고 세상에 불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워주시기 위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심과 조선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대한 열화같은 신뢰의 정으로 새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라 태양성지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의 청년운동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질 청년전위들의 대회함을 마련해주시었으며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기반도

수어해주시고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불멸의 대강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답례하시며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을 대표하여 남녀청년들이 온 나라 전체 청년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축원의 마음을 담아 향기로운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의 뜻을 받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영웅청년선화의 창조자, 고상한 사회주의미풍선구자의

영예를 빛내이며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크게 공헌한 대회참가자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버치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걸사옹위!>의 구호의 함성이 또다시 하늘향을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격정에 겨워 목청껏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따뜻한 손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 높이 청년동맹을 영원의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동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조선

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판철을 위한 만리마속도창조의 선봉에서 우리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청년동맹 제9차 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람다 김일성-김정일주의정수본자, 사상파 신념의 제일강자가 되어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의 필승의 기상과 전무적위용을 힘있게 펼쳐나갈 불라는 맹세를 다지었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인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존경하는 동지
나는 당신께서 나의 생일 85돐에 즈음하여 따뜻한 축하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프로 루쓰

2016년 8월 23일 아바나

주체적청년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전하는 사상교양의 거점

청년운동사적관 개관후 1460여개 단체의 11만 9000여명 참관

조선청년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청년강국건설의 자랑스런 역사를 펼쳐신 백두산결사대원들의 불멸의 청년운동명도업적을 만대대 김이 전하는 청년운동사적관을 인민군관민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과 해외동포들, 외국인들이 찾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승수며 당의 투리에 성벽을 이루고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는 두려운것이 없고 뜻해낼 일이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로동당시대를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로 빛내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역사의 신명과 의지를 힘있게 파시하며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가 성대히 진행된 8월에만도 2만 5000명이 청년운동사적관을 참관한것을 비롯하여 개관후 이곳을 찾은 참관자수는 1460여개 단체의 11만 9000여명이 달한다.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민대에 빛내여 가려는 인민군인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참관자들은 백두산결사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에 주체적청년운동에 새겨진 자랑찬 승리의 역사를 깊이 체득하였다.

홍서훈에 들어선 참관자들은 청소년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림상을 우러러 참가인사를 드리었다.

결사대원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르며 그들은 혁명명도의 전기간

【조선중앙통신】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제 9 차 대 회 참 가 자 들 과 함 께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제 9 차 대 회
참 가 자 들 과 함 께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제 9 차 대 회 참 가 자 들 과 함 께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제 9 차 대 회 참 가 자 들 과 함 께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경 애 하 는 김 정 은 동 지 께 서

김 일 성 사 회 주 의 청 년 동 맹 제 9 차 대 회 참 가 자 들 과 함 께 기 념 사 진 을 찍 으 시 였 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높이 휘날리며 주체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주체조선의 청년대축전으로 빛내던 공지도 높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혁명적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시고 집행된 영광의 대회에서 주체적청년운동발전의 불멸의 대상을 받아안은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온 나라 청년전위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펼쳐갈 불같은 열에 충만되어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가 30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당의 믿음직한 영웅청년대군의 기상이 차넘치는 결의대회는 때두산청년강국의 혼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대회장정면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고 큰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인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의 명도마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인 동맹안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명도체제를 더욱 굳건히 세우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김정은장군관하》 주악으로 결의대회는 시작되었다.

전용된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미서가 모교를 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관심속에 집행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명적 영웅을 옹호고수하고 깊이 빛내이며 주체의 청년운동의 승리적전진과 청년동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역사적인 계기로 되었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에서 청년동맹의 명성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에 새롭게 명명하도록 하여주시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철저히 수어하여주시고 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만민에게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 연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자》는 청년동맹이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밑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의 영예로운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며 다해나갈수 있도록 힘있게 추동하는 전후적기치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위대한 태양을 높이 모신 때두산청년강국의 혼연과 위용을 힘있게 과시한 청년전위들은 이 땅 위에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대정표를 펼쳐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의 정에 휩싸여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제기 청년운동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여 주체청년운동의 역사적투쟁과 전봉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발동대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청년전위들의 주체적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혁명의 태풍불고 물소 안겨 주시면서 수령의 청년조직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500만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넋을 길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에 수령님들의 존함을 높이 모시도록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동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수령집사용위의 전위대로, 조국조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강령의 청년조직으로 위용을 펼쳐고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때두산영웅청년전진의 창조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자랑스럽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발동대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청년전위들의 주체적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혁명의 태풍불고 물소 안겨 주시면서 수령의 청년조직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500만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넋을 길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에 수령님들의 존함을 높이 모시도록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동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수령집사용위의 전위대로, 조국조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강령의 청년조직으로 위용을 펼쳐고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때두산영웅청년전진의 창조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자랑스럽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발동대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청년전위들의 주체적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혁명의 태풍불고 물소 안겨 주시면서 수령의 청년조직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500만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넋을 길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에 수령님들의 존함을 높이 모시도록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동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수령집사용위의 전위대로, 조국조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강령의 청년조직으로 위용을 펼쳐고있으며 우리

청년들은 때두산영웅청년전진의 창조자,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명장들로 역세게 자랑스럽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시며 청년강국의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김정일동지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청년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명도하시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 전투부대, 발동대로 내세워주시고 우리 청년전위들의 주체적투쟁을 끝까지 이어나가도록 혁명의 태풍불고 물소 안겨 주시면서 수령의 청년조직건설의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청년운동이라는 고전적정식화를 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 500만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넋을 길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에 수령님들의 존함을 높이 모시도록 최상최대의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청년동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수령집사용위의 전위대로, 조국조적력과 단결력, 전투력이 강한 강령의 청년조직으로 위용을 펼쳐고있으며 우리

합력합작기업소 로동자 로동들이 걸의로운 을 하였다.

로동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시신 최상최대의 믿음과 하늘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청년들은 원수님께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연설에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 이념으로 공지도 높이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혁명적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갈 신념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뿜어내고있다고 말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활동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각급 동맹조직들을 정예화한 청년대대로 만들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청년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사상의 포문을 일제히 열고 사상교양사업을 청년맛이 나게 참신하게, 공세적으로 벌려 모든 청년들을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키워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집단적정열투쟁을 세차게 일으켜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영웅청년선화를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창조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면서 청년들속에서 창조적지력과 열정을 다 바쳐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선구자, 개척자가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백두대지에서 창조된 영웅청년문화를 활짝 꽃피워 온 나라에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하며 온 사회에 도약기상을 세우고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갈것에 대하여 그들은 언급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선군총대를 더욱 역세게 끌어올려 당이 가리키는 한민족으로만 충고를 내리고 나아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제1군구명령이 되어 철학자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하면 적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업을 기어이 성취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로동자들은 그 어떤 선진공과가 타락되어도 일관단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만을 끝까지 따르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와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기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라!》 노래가 부를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와 각 당당위원회 위원장들, 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이 결의대회를 참가하였다.

청년전위들의 결의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기발을 대오앞에 펼친 뒤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마라 때두산청년강국의 혼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이 29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새로운 도약기가 펼쳐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소집된 청년동맹 제9차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청년운동사상과 명적 영웅을 면대어 빛내이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을 조선로동당의 전위대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발전에서 분수령을 이루는 뜻깊은 대회에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한결같은 넋을 길어 헤아리시고 청년동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도록 해주시면서 동맹기발을 철저히 수어하여 주시고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며 주체적청년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불멸의 대상을 안겨주시었다.

대회에서는 김 동맹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함에 대한 웅대한 목표와 수행방도가 제시되었으며 대회참가자들이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에로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간다는데서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런 강습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당의 명도마라 청년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향을 이끌어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강습에서는 먼저 박지용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운동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전철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갈것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출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상의 국시로, 혁명의 전철적로선으로 세우고 현명하게 이끄시며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였으며 세상에 줄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우리 수령님들께서 이룩하신 영광한 공적입니다.》

출연자는 불멸의 정치사상강국, 무적원순의 군사강국과 함께 주체의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들의 업적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웅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청년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새롭게 밝히고 특장적인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시었다.

청년중시사상에는 청년교양에 선자적인 힘을 넣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들이 선봉적,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데 대하여서와 로동계급의 당이 청년사상을 틀어쥐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교양 육성하는것이 청년문제해결에서 근본적으로 된다는 사상을 비롯하여 청년운동에 관한 사상적론들이 전철적으로 밝혀져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 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청년중시사상을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이 강하고 군대가 강하고 청년동맹이 강하면 무서울것이 없다는 당, 군, 청에 관한 사상을 제시하시어 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지위를 세로써 높은 경지에 올려 세워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청년운동에 관한 특장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청년운동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청년들을 망라한 대중적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위업을 힘있게 펴고나가는 사회적운동의 위력한 구성부분으로서 자기 발전의 새 역사를 펼쳐나갈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의 위업을 앞당기는 앞잡이로 키우시어 청년조직, 수령의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청년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 주체혁명위업

수행의 명장들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세게 키우시어 불멸의 청년강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창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어 오신 리론 청년운동사상과 불멸의 명도적은 온갖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은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이라는데 대하여 현명하시고 청년동맹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출연자는 전체 대회참가자들이 주체적청년운동의 맥과전선이며 승리의 기치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청년운동명도적임을 심장깊이 체득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청년동맹의 모든 사업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용을 일관하여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데로 지향시키고 북돋우시며 명도적단위들이 이 사업에서 앞장서나갈것에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출연자는 모든 청년동맹조직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위업을 만민초적으로 틀어쥐고 조선청년운동을 영원히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운동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간다는데서 현명하게 강조하였다.

이어 출연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미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의도에 맞게 청년동맹사업에서 새로운 전향을 일으키는데 대하여》라는 제목에서 청년동맹사업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적청년운동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더욱 심화시켜나간다는데서

청년동맹일꾼들과 청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혁명분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걸사용위하는 한결단결의 생애, 방패가 되어야 한다.

청년동맹을 하나의 사상,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제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명도적임을 철저히 관철하고 깊이 들어가는 혁명적투쟁과 질서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을 동맹사업의 중심, 핵으로 틀어쥐고 심숙있게 벌려나간다는데서

청년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5대교양에 혁명을 집중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세워주시신 우리 식의 가장 우월한 청년교양체계를 정상적으로 심숙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년동맹조직생활체제와 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양식도체제를 정연하게 세우며 청년동맹조직생활을 함입의 불결속에서 위력적인 강령의 풍조조직체제화시키라는 전투대로 주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도, 시, 군청년동맹위원회들은 동맹교양조직들을 강화하는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명심하고 초급조직들을 책임적으로 지도하고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청년동맹조직들은 전철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주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열심히 투쟁하여야 하며 정치실무적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강습을 통하여 참가자들은 특장적인 청년중시사상, 청년중시정치로 승리의 자랑한 역사를 아로새겨온 주체청년운동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청년들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총공적전에서 당의 청년전위, 척후대로서의

전용을 마련해 주시고 끝없이 빛내어 주시는 때두산선군위업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체득하였다.

한편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청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당일군들의 강습이 있었다.

강습에서 출연자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청년동맹안에 당의 유일적명도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청년들을 당의 후비대, 척후대, 익측부대로 철저히 준비시키며 청년동맹이 사상교양당으로서의 시기의 사명과 임무를 완만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당적지도를 짜고달라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 제7차대회와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제시된 전철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청년동맹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하여, 청년강국의 위대한 대업을 향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다짐하여 결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축하공연 진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배두산대국의 청년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한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드높은 혁명열, 투쟁열을 베풀어주는 음악포성, 노래포성이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합동축하공연이 29일 4.25문화관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의 성취이 된 무한한 영광과 긍지를 안고 피끓는 청춘을 혁명을 바치며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김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선봉대, 돌격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갈 관람자들의 혁명적 열의로 세차게 끓어오르고 있었다.

최용태 동지, 김기남 동지, 김수길 동지, 김승오 동지, 박태성 동지와 피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가 공연을 함께 보았다.

선군혁명의 제일나팔수, 당의 믿음직한 예술선구자부대인 청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진취적인 창작창조기풍으로 우리 인민군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을 최후승리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의 노래, 만리마시대의 진군가를 세우고 특색있게 형성하여 뜻깊은 공연무대를 펼쳐놓았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관현악과 남성합창 《충성의 한길로 가고가리라》, 남성합창과 중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경음악 《진선행렬차》, 남성중창 《우리는 혁명의 계승자》, 《조선의 모습》, 《우리는 만리마시구》, 가무 《우리를 부러워하라》, 남성합창 《우리는 당신박

에 모른다》 등의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수령님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령한 전위대로,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역사적 키워주시고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시신 불멸의 업적을 서사시적화복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이셨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청년문제를 혁명의 전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로 보시고 백만자루, 천만자루의 손을 들이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언명만 믿고도 우리 청년들이 졸업한 혁명의 년대마다 영웅청년대군, 명장대군의 용맹을 떨치며 반제반미대결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아로새겨온 긍지높은 나라들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 시호를 대외문화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판계부총 일꾼들이 음악이여 노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성중창 볼루의 명작 《남산의 푸른 소나무》, 관현악과 남성합창 《백두산 노래편곡》, 남성5중창과 남성합창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에서 출연자들은 백길발굴의 혁명정신, 계속혁명사상으로 승송장구려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투쟁정신을 이어 오지 않을 따라 혁명의 한길로 끝까지 걸어 나갈 선군시대 청년전위들의 활짝같은 의지를 힘있게 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과 업적을 민중에 깊이 빛내여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흠모하고 따르는 온 나라 청년전위들의 끝없는 충성의 마음을 담은 여성중창 《영원히 변함없으리》, 남성3중창과 남성 《간절한 마음》, 김정일상사관장관 관현악과 남성합창 《영원히 한길로 가리라》는 장내를 뜨겁게 울려주었다.

당시 정태준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승기를

고 영용하고 미더운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때밀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넘치는 청년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뿌릴것이라는 확신을 안겨주는 남성합창 《청춘송가》가 울려 퍼지는 속에 공연은 최정점을 이루었다.

로 새로운 경지의 음악형상을 창조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질찬을 받았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 15돐과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5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대사관에서 음악회 마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방문 15돐과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5돐에 즈음하여 주조 로씨야대사관에서 마련한 음악회와 30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씨야친선협회 위원장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에 즈음하여 나이제비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가 2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은 청년강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위대한 당의 두리에 뭉친 힘 영원한 승리로 떨치리

노래가 울린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일심단결의 대회, 충정의 대회로 빛내인 크나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으로 우렁찬 내나라 방방곡곡에 신념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진다.

우리들은 조선청년 슬기로운 인민의 아들딸 부강조국 건설하는 장엄한 세대의 투사다 일리에서 학원에서 우리의 젊음 힘 솟나니 발걸음도 우렁차게 김장군 두리에 뭉치자 ...

수백만 청년대군의 힘을 총괄 발사하며 김일성, 김정일청년강국 건설과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는 온 세상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의 가사를 구구절절 읊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작가를도 미처 생각지 못한 명시구들로 노래 《민주청년행진곡》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의 가사를 구구절절 읊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작가를도 미처 생각지 못한 명시구들로 노래 《민주청년행진곡》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노래의 가사를 구구절절 읊어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었다가 작가를도 미처 생각지 못한 명시구들로 노래 《민주청년행진곡》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었다.

청춘의 자서전에 위훈을 새기자

연안군 청화협동농장의 청년들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장을 울리며 대한당의 뜻을 심장 새기고 총성의 200일전투에서 기적의 창조자, 청년영웅이 되려는 농장청년들의 애국충정의 분출이 날은 자랑찬 결심이다.

농장청년들은 즉시 현지에 전막을 전개하고 끝까지전투를 본때있게 벌리었다.

피끓는 청춘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서슴없이 바칠 결사의 각오로 열쳐나선 청년들은 현장에서 오고가는 시간도 아까와 운반사들 조직하며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품매기계획을 120%이상 넘쳐 수행하였다.

기를 넘는 풀을 밟으면서 배는 고프고 힘은 떨어졌지만 배어오는 풀을 운반해오는 일 또한 보

내었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승위며 당의 투쟁에 생명을 이룩고 당을 따라 영원한 청춘으로 살려는 이들의 높은 정신세계는 농장일꾼들과 농장원들을 감동시켰다.

9월 중 지자기 현상

| | | | | | | | | |
|--|--------------|--------------|------------|------------|--------------|-------------|-------------|--------------|
| 9월에 일기와 기라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평양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9월 중 지자기 현상

| | | | | | | | | |
|--|--------------|--------------|------------|------------|--------------|-------------|-------------|--------------|
| 9월에 일기와 기라 지구물리학적요인에 따라 불리한 날과 시간(평양시간)은 다음과 같다.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평양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 청진지방 | 12일(16시-18시) | 16일(11시-13시) | 19일(1시-3시) | 23일(5시-7시) | 26일(16시-18시) | 1일(12시-14시) | 8일(20시-22시) | 10일(15시-17시) |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떠나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

조우호를 단장으로 하는 조국방문단이 30일 갔다.